

시조강경화

덜컹

새로 놓은 탁자가 덜컹덜컹 흔들린다
눈으로 더듬어도 만질 수 없던 깊이
종잇장 두툼하게 접어 기운 쪽을 괴어본다

모로 누워도 편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바닥
탁자 위에 엮지른 물
낮은 쪽으로 흐른다

마음이 덜컹 꺼지면
이 깊이만큼 뭘 괴아할까

라일락꽃 만발하던 보랏빛 봄날일까
향기 없이 붉게 떠난 노을 같은 그대일까

기우뚱,
쉬 잡히지 않아
덜컹대는 소리 잦다



약력

▲'시조시학' 신인상
▲시집 : '사람이 사람을 건디게 한다', '나무의 곁을' 외
▲광주전남시조인협회 작품상 수상
▲무등시조문학상, 열린시학상 수상



한시기세규

企村(俛仰亭)學德

기촌(면양정) 선생의 학덕에 부쳐

企村學德高揚名 기촌학덕고양명
賢弟雲集滿頌聲 현제운집만송성
四百年前極美風 사백년전극미풍
今天再宴顯古情 금천재연현고정
何人歸村閑居享 하인귀촌한거향
遠近各處諸儒迎 원근각처제유영
華官如夢文成久 화관여몽문성구
俛仰懷能官文盈 면양회능관문영

기촌선생 학덕을 드높이 날리니
어진 제자 구름 같고 칭송이 가득하네
사백 년 전 지극했던 풍속이
오늘에 펼친 잔치마당 옛정이 새롭다네
어떤 이가 고향 와서 한가함을 누리는가
원근각처 선비들이 하나같이 반기는 걸
꿈같은 벼슬살이 이룬 학문이 굽이굽이
면양선생 보인 품성 가득할 손 벼슬일세

*기촌(企村), 면양정(俛仰亭) : 송순(宋純 1493-1583)의 호. 조선 중기 문신이자 대학자로
면양정가(面陽亭歌)의 창설자이자 강호가단의 선구자
*회방연(回榜宴) : 대과(大科)에 급제한 지 예순 돌을 기념하는 잔치

약력

▲광주문인협회 한시분과 회원, 고전풍류인문학연구원장
▲광주 유학대학 교수, 인문경영학박사
▲고전풍류인문학강연(20년)
▲저서 : '인간의 길', '고전에서 만난다'
▲창극대본 : 창작마당극 적벽공룡, 암행어사 각설이, 창극 춘풍(春風) 등



시허갑순

장미원에서

장미꽃이 고개를 든다
깊숙이 숙인 이마 위에
서늘한 안개가 앉아있다
뿌연게 탈색된 안개의 허끝에
달랑 장미꽃 한 송이 거칠게
꽃혀있다
장미꽃들의 행방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직 여름이 한창인데
정원사에게만은
장마들은 한 송이의 꽃일 뿐
얼굴이 아니다
계절을 타지 않는 정원사는
아직 시들지 않은 여름을
무자비하게 잘라버린다
찰칵찰칵 시간이 잘려나가고
가을이 그의 손끝에서 장미꽃을
피워 올린다
가위질에 능숙한 정원사는 신이 났다
세상을 바꾸어야지
장미꽃을 바꾸어야지
장미 한 송이 사람들을 닮았다
겨울이 슬그머니 손을 뺐어 정원사의
얼굴을 찌른다 굵은 가시 아직
싱싱하다

약력

▲'시와 산문'으로 등단(1996)
▲서울 시인상, 국제팬광주문학상, 광주시문학상 수상
▲시집 : '새벽이 환하게 오고 있다' 등 8권
▲저서 : '현대시의 시간과 공간인식' 등 2권
▲전 조선대, 동신대 외래교수, 현 광주YWCA시협상임이사장



수필최미경

나의 사랑하는 생활

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백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 돈으로 산속 외딴집을 일주일만 빌리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오랜지 빛 노을을 등지고 천천히 날아 잠들 곳을 찾아 숲으로 드는 새들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해 질 녘을 사랑할 것이고 이내 검푸러진 하늘에 반짝이며 나타나는 별을 해는 생활을 사랑할 것이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조금은 소란스러운 산세 소리에 잠을 깨고 싶다.

바스락거리는 새하얀 옥양목 활청 이불을 꼭 덮고 깊은 잠에 들 것이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잠을 깬 후 동쪽으로 난 작은 창을 열 것이다.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청량한 바람을 지칠 때까지 맞는 아침을 나는 사랑한다.

배가 출출해져 오면 그날 느낌에 따라 라흐마니노프든 최백호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아침을 준비할 것이다. 커피 물을 올려놓고 오일장에서 사 온 싱싱한 유정란 두 알을

프라이하고 잘 익은 홍로 반쪽을 까서 그곳에 성찬을 즐기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을 돌아가며 부르고 싶다. 갑자기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갑자기 다섯 알을 까서 물에 담가 놓고 우리 엄마 만듯 국 맛을 기억하는 친구를 위해서는 만두를 빚을 것이다. 그들이 도착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나는 작은 풀꽃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을 좋아한다. 풀밭으로 아기벌이 쏟아져 내린 것 같은 고마리며 여귀, 하얀 상아를 품고 있는 진보라색의 달개비를 특히 좋아한다. 아침 햇살 속 성전처럼 고요하고 빛나는 풀밭을 그들과 벗하며 걷는 일상을 사랑한다.

또 하얗게 센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걷는 노신사가 좋다. 그리고 억센 손마디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도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착한 사람이 참 좋다.

나는 지금 사는 이집이 좋다. 창 건너내 친구 느티나무가 있는 것도 좋고 나무에 새들이 놀러 오는 것을 구경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사랑한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집안에서 남편과 나는 거실이라는 큰 강을 사이에 두고 각방을 쓰지만 방해받지 않는 이 삶이 좋다.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그리고 따로 또 같이 살다가 아이들이 집에 와 부산해지는 일상도 사랑한다. 내가 더 늙고 손주가 생기면 이 행한 거실이 아기 뱃새로 가득 찰 그날을 사랑할 것이다. 찹찹이 나는 딸과 함께 여행을 할 것이다. 눈 내리는 날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것이고 오로라를 보기 위해 떠나는 먼 여행도 마다하지 않을 생활을 나는 지극히 사랑한다.

약력

▲광주문인협회 회원
▲무진주수필문학회 회원
▲대한문학작가회 회원
▲저서 : '첫물을 품으며'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지방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